

연구노트

-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김경희 | 본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김이선 | 본원 연구위원
- 여성친화적 문화시설 조성방안 연구 :
공연시설내 보육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이수연 | 본원 선임연구위원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

김 경 희 | 본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1. 머리말

성 주류화의 목표는 여성정책을 뛰어 넘어 일반정책까지도 성 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부당함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성별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이 남녀 불평등하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성별영향평가는 참여기관 및 대상과제 수 모두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대상과제의 분야도 다양해지면서 일반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할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 및 정책환류에 대한 점검은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환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가 낮고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환류를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실행되어 왔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2. 성 주류화의 성과관리에 관한 논의

성 주류화의 성과관리는 국내에 제도화되면서 공공정책의 성과분석, 성과점검의 차원에서 성과 파악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성 주류화 관련제도를 모니터링한다는 차원에서 성인지 감사(gender audit)라는 새로운 개념 적용을 통해 접근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서 공공정책 성과분석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분석방법 등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성과관리란 지속성과 순환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성별영향평가의 성과관리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목표를 검토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성별영향평가 인프라를 점검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성별영향평가 수행으로 대상과제의 선정과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성인지 감사로 성별영향평가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환류를 점검하는 것이다.

3. 주요국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과 성과

성별영향평가, 성분석을 활발하게 추진해 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례분석을 통해 성과와 과제를 국가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캐나다의 제도개선의 방향은 모든 정부부처가 성분석의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는 한편, 성분석의 역량을 높이고 성분석의 결과를 해당부처의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또한 성분석의 추진체계를 개선하면서 여성지위처 뿐만 아니라 핵심부처인 재정위원회와 추밀원이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성분석을 실행하도록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강화하였다. 호주의 성분석, 성 주류화 관련제도는 집권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연속적이기 보다는 단절적이다. 특히 여성정책의 추진기구가 미약하고 여성단체, 의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활발하지 않아 호주의 성분석,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캐나다, 뉴질랜드와 비교해서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반면에 뉴질랜드는 여성부가 성분석을 주관하는데 정부 보고서의 여러 항목 중 하나로 성분석을 포함하도록 하며, 내각의 사회평등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모든 부처는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성별영향평가항목(GIS)을 작성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와 연동시키고 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평등 향상이라는 성과목표와 연계시켜 여성을 위한 성과목표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5년 성과

여성가족부는 2004년에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을 위해 시범분석을 실시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이 제도의 가시적 성과는 사업규모와 사업 영역의 확대이다. 2005년과 비교하여 2009년에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한 기관 수는 49개에서 298개로 5.9배가 증가했으며 참여과제 수는 76개에서 1,911개로 25.1배로 늘어났다. 또한 제도운영의 초기와 비교해서 새로운 분야에서 대상과제가 선정되고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인 예로,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분야’와 같이 성별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 분야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가 선정된 것이다.

지난 5년간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성과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관들은 소극적인 참여를 보여 왔다. 그러나 총괄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비율이 2007년 8.3%에서 2008년 14.8%, 2009년에는 4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진체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총괄 책임지는 추진부서가 없다는 것은 평가결과를 환류하기 위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과 상관성이 있으며,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기준에 의해 구분해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50.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의 현황을 보면, 총괄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2007년 6개에서 2008년 9개, 2009년에는 13개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괄부서의 지정비율이 2009년 기준 45.8%에 불과하지만 2008년의 30.4% 보다 증가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인프라 구축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5.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성과 및 환류사례

지역사례 연구는 지금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5개 권역별로 나누고 지역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진과 지역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시도하여 지난 해 개발한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모형을 연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5개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환경과 정책환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성 주류화 실행의 지역간 편차가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셋째, 5개 지역-경기, 대전, 부산, 전남, 제주-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구체적 성과와 사례발굴 목적은 지역의 환류 추진성과 및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특히 각 지역에서 발굴하여 제시한 환류사례들은 환류실적 뿐만 아니라 환류과정이나 환류 추진체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정책 환류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6. 개선과제

이 연구는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를 파악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첫째,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의 제정을 포함한 법체계의 개선과 과제선정·평가위원회의 확대를 통한 추진체계의 개선, 공무원의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성별영향평가 예산·홍보 등의 지원확대를 제안하였다. 둘째, 제도수행의 측면에서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확대,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의 양식 개선, 환류실적 보고서의 양식 개편을 제시하였다. 셋째,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성과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확대, 정책환류 모니터링을 통한 젠더 거버넌스의 실천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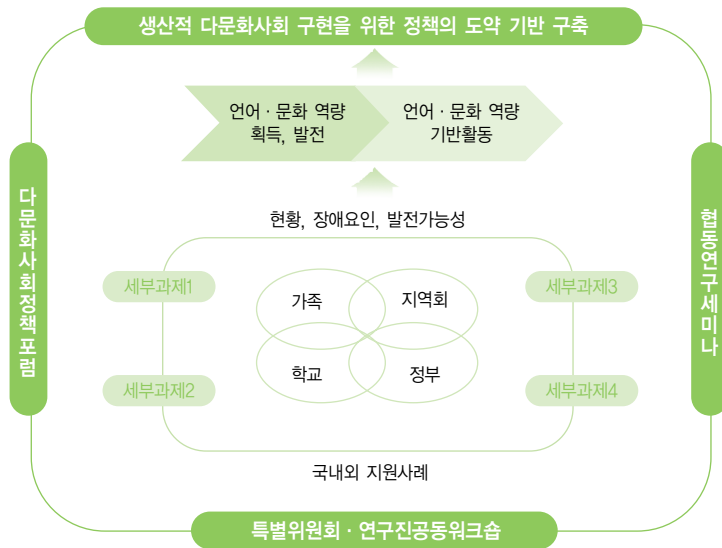
김 이 선 | 본원 연구위원

이주민의 증가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갈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찾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공존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전개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정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데 있어 문화적 다양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다양한 언어·문화 자원의 발굴, 언어·문화적 역량을 지닌 인적 자원의 형성, 사회 전반의 문화적 역량 제고 등의 측면에도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이주민의 빈곤화나 사회적 고립문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도 문화적 다양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 이주민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 문제가 점차 본격화되는 과도기적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사회로서는 이주민의 증가가 사회적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에 본격적 관심을 기울이고 가급적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확대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해야할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민의 존재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이고 이주민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줄여가기 위한 접근, 즉 생산적 다양성(productive diversity) 전략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4차 연도를 맞이한 협동연구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은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을 주제로 정하였다.

한국사회는 이주민 가운데에서도 한국인과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문화적 다양성,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본 협동연구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중심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개인적 역량, 사회적 자원으로

발전되어 관련자 개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주요 장애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긍정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총괄 과제와 4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림 1〉 2010 협동연구 구성

연구 결과, 현재로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지니는 언어·문화적 특수성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자질이자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받고 그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문화적 특수성에 기반한 역량을 획득하고 한국사회에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이 중층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언어·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부정적 가치 부여
- 가족의 일상생활 중 언어·문화적 자질 획득 기회 제약
- 주류문화와의 소통을 통한 언어·문화적 역량 개발 가능성의 제약
- 언어·문화적 역량의 낮은 실용적 가치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에게 있어 현재로서는 결혼이민자나 그 자녀들이 자신의 문화적 특수성을 긍정적 자질로 발전시키고 이를 사회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언어, 소수문화 배경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언어, 문화적 자질을 발전, 구현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언어·문화적 역량의 발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이를 활용한 각종 활동을 펼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부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초기단계에 불과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정책적 지원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이고 다문화가족 일반, 나아가 다문화사회의 전개과정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수 가능성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이 언어·문화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림 2〉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역량과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일관된 정책 기조 확립 :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 역량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관련 정책의 다문화지향성 점검
-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사회 환경 촉진 : 다양성이 존중되고 양성 평등한 다문화가족 환경 조성,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주류사회 인식 전환 전략 강화

- 소수언어·소수문화에 우선순위를 둔 언어·문화 자원 개발 방향 설정 : 한국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언어·소수문화 중심적 홍보·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 도서관이나 학교 등에 다문화 코너, 다문화 자료실 설치 등
- 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문화 역량 발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 모어교육으로서의 기본적 방향 정립, 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 교육기회 확대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중도입국자녀의 언어·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활동 지원
-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 역량 기반 활동 활성화 : 언어·문화적 역량을 활용한 직종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이중언어교육 분야 전문인력 개발,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기회 확대, 언어·문화적 역량의 사회적 활용 촉진을 위한 브리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여성친화적 문화시설 조성방안 연구: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이수연 | 본원 선임연구위원

오늘날 문화시설은 문화복지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다. 국민소득이 2만 불에 다다르면서 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향유는 국민의 복지 체감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시설을 여성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을 여성친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친화적인 문화시설 조성방안의 화두로서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보육편의시설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정규 보육시설은 아니면서 공연장을 찾는 관객의 편의를 위해 동반 아동을 돌보아주는 시설을 말한다. 본고는 전체 연구내용 중 보육편의시설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현재 생각해볼 수 있는 보육편의시설의 유형은 먼저 돌봄의 내용에 따라 단순히 돌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놀이방 모델과 아동을 돌보면서 문화 체험 혹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모델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는 운영시간에 따라 공연이 있을 때만 운영하는 수시 운영 모델과 공연과 관계없이 일주일 내내

〈표 1〉 공연시설 내 보육편의시설 모델

모델	세부유형	설치 요건	연간 예산	필요 교사 수
놀이방 모델	수시	- 공연 횟수 : 주 평균 2회(4시간)이상 - 이용 아동 수 : 1회 평균 5명 이상	1,000만원~ 5,000만원	1~5명
	상시	- 공연 횟수 : 월 30회 이상 - 공연 외 관람시설, 문화교육시설 있는 복합 문화시설	2,500만원 이상	2명 이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모델	수시	- 공연 횟수 : 주 평균 2회 이상 - 이용 아동 수 : 1회 최소 7~8명	2,000만원 이상	2명 이상
	상시	- 공연 횟수와 관계없이 구민(시민)회관 또는 문예회관과 같은 공공시설로 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강사지원 협력 프로그램 개발 가능한 곳	2,000만원 이상	2명 이상

정해진 시간에 운영하거나 정해진 요일에 운영하는 상시 운영 모델이 있다. 따라서 운영 시간과 돌봄 내용을 결합하면 수시 놀이방 모델, 상시 놀이방 모델, 수시 문화프로그램 운영 모델, 상시 문화프로그램 운영 모델의 4가지 기본 모델이 존재한다.

놀이방 모델

1) 수시 놀이방 모델

가) 운영방법

공연이 있을 때만 수시로 운영하는 모델로 아이를 돌보는 기능만을 가진다. 현재 대부분의 공연시설이 이러한 형태로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소의 관리만으로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공연이 있을 때마다 편의시설을 열 수 있기 위해서는 일 년 내내 이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보육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보육교사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연시설의 주 평균 공연회수 2회 이상, 한 번 이용 아동수가 5명 정도의 최소 조건이 필요하다.

나) 사례

고양아람누리과 고양어울림누리는 지자체가 설립한 고양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표 2〉 수시 놀이방 모델의 사례

시설명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운영주체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보유시설	공연장, 전시관, 문화센터	공연장, 전시관, 문화센터
공연횟수	월 평균 35회	월 평균 30회
운영시간	공연일 평균 4시간	공연일 평균 4시간
이용아동연령	4세~7세	4세~7세
교사	3명	2명
교사자격	주교사 :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부교사 : 아르바이트 등	주교사 :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부교사 : 아르바이트 등
인력채용 및 관리	용역회사 위탁	용역회사 위탁
프로그램	(짧은공연) 자유놀이 (긴 공연) 영상물상영, 책읽기, 색칠하기, 그림그리기, 찰흙놀이	(4세) 자유놀이 (5세이상) 영상물상영, 책읽기, 색칠하기, 그림그리기, 찰흙놀이
연간소요예산	3천3백만원	



2) 상시 놀이방 모델

가) 운영방법

상시 놀이방 유형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내내 정해진 시간에 운영되는 형태이다. 이처럼 상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연회수가 월 30회 이상은 되어야 하고 공연 외에도 관람시설이나 문화교육 시설이 같이 있어 관람객이나 교육생을 보육편의시설의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 정도부터 시작하고 야간공연을 고려하여 저녁 9시 정도까지 12시간 정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8-9시간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놀이방 크기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지만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아동수가 15명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40㎡ 이상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100㎡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면 이상적이다.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는 교대근무를 해야 하므로 운영시간에 따라 3-4명의 상시인원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상시 놀이방 모델은 정식 보육시설은 아니지만 상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형의 공연놀이방 시설 보다 교사, 프로그램 등 여러 측면에서 규격구비가 요청되는 유형이다. 교사는 보육교사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육시간이 길어서 교사들은 교대업무를 하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주교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가입이 필수적이며 여러 아동이 드나들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독과 함께 아동의 위생상태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합공연시설은 문화생활향유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커뮤니티센터로 자리매김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공연관람을 통한 이용고객의 문화향유뿐 아니라 아동이 미래 잠재문화고객으로 준비 되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공연놀이방 시설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간단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앞으로는 신축되는 모든 복합문화시설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보육편의시설이 포함되어 동선까지 고려되어 건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나 전시회를 관람하고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문화커뮤니티로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보육편의시설은 공연관람객뿐 아니라 전시, 문화아카데미수강생, 시설방문객 모두가 이용 가능한 접근성 높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나) 사례

성남아트센터는 전형적인 상시 놀이방 유형의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표 3〉 상시 놀이방 모델의 사례

시설명	성남아트센터
운영주체	성남문화재단
보유시설	공연장(3,176석), 전시관, 문화센터
공연횟수	월 평균 30회 이상
운영시간	2005년부터 매일 09:00-21:00(휴관일 제외)
이용아동연령	4세-7세(한달 평균 이용아동 수 : 180명 정도)
교사	4명
교사자격	주교사 : 보육교사 3급이상 자격증 보유자
	주말 : 아르바이트생 활용
인력채용 및 관리	용역회사 위탁
프로그램	월별 교육계획(안)에 의한 프로그램 진행
연간소요예산	2천7백만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모델

공연시설에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 혹은 가족의 문화향유기회를 늘리는 것을 일차 목적을 갖는다. 그런데 어머니 혹은 부모가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보육편의시설에 맡겨진 아이들도 다소의 문화경험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문화향수에 있어서 어릴 적의 공연관람기억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접촉경험은 문화향수에 대한 태도나 문화향수욕구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어른들이 공연을 관람할 때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짧은 체험에 불과할지라도 이들을 잠재적인 문화향수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보육편의시설에 어린이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서 문화프로그램은 반드시 무거운 문화강좌일 필요는 없다. 물론 가벼운 음악, 미술 교육도 가능하겠지만 아이들이 즐기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좋을 것이다.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육편의시설 모델은 상시와 수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시는 공연이 있는 시간에만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되 그 때 문화강좌나 체험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상시는 공연이 있든 없든 정해진 시간에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전자는 공연관람객의 편의를 먼저 고려하되 이를 아이들의 문화체험의 기회로 이용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아이들의 문화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로도 이용하자는 것이다.



1) 수시 형태

가) 운영방법

이는 앞의 수시 놀이방의 형태로 운영하되 여기에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서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 유형도 일주일에 평균 공연회수가 최소 2회는 되어야한다. 또 이용 아동수가 한 번에 최소 7~8명은 되어야 한다.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최소 1명이 되고 여기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전공 교사가 한명 더 필요하다. 혹은 문화전공자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하여도 좋다. 문화 프로그램은 보육교사가 문화전공자일 경우 직접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문화전공자가 아닐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한데 외부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문화예술인은 파견 받는 방법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지역 센터 및 문화예술기반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 센터와 문화의 집에 예술 강사를 파견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이 결합된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연시설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아동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문화예술강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사례 : 국립국악원

앞의 모범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립국악원은 전통음악, 놀이, 문화와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편의시설에 오는 아동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4〉 수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모델의 사례

시설명	국립국악원
운영주체	국립국악원
보유시설	공연장(3,176석), 국악연수관, 야외놀이마당
공연횟수	성수기(7-8월, 1-2월) 기준 주 5회 이상
운영시간	매 공연시단 30분 전~ 공연종료시까지
이용아동연령	36개월이상~미취학아동(월 평균이용자수 120명)
교사	4명
교사자격	주교사 : 보육교사 3급이상 자격증 보유자
	주말 : 아르바이트생 활용
인력채용 및 관리	용역회사 위탁
프로그램	월별교육계획에 의한 '유아국악놀이방프로그램' 운영(국악기체험, 전래놀이경험, 전래동요배우기 등)
연간소요예산	2천만원

2) 상시형태 : 어린이 문화·보육 프로그램

구민(시민)회관 혹은 문예회관 중에는 공연회수가 한 달 몇 회에 불과한 곳도 있다. 이런 곳에서는 공연관객만을 바라보고 보육편의시설을 운영하기는 힘들다. 반면에 이런 공공시설을 지어놓았으면 충분히 이용을 해야 할 당위성도 존재한다. 아동들을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구민회관이나 문예회관의 기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 문화체험프로그램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2~3세에서 4~5세까지, 4~5세에서 6~7세까지, 그리고 6~7세에서 13세까지 등으로 분류하여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린 아동들에게는 놀이방처럼 놀이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체험을 추가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교육보다는 놀이를 통한 문화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상시 어린이 문화·보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연을 보러온 관객은 이 시설에 아이를 자유롭게 맞길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이나 교사의 조달은 앞의 경우처럼 국립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를 파견 받으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 큰 예산 없이도 어린이 문화·보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